

전일동향

전일대비 5.20원 상승한 1,431.00원에 마감

14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5.20원 상승한 1,431.00원에 마감했다.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0.70원 상승한 1,426.50원에 개장했다. 환율은 미-중 무역 갈등 우려에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, 특히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다섯 곳을 겨냥해 제재를 가하면서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해 상승폭을 키우며 1,431.00원에 증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 장중 변동 폭은 6.1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42.38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증가(15:30)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426.50	1435.50	1425.60	1431.00	1428.40
엔화	936.20	944.74	931.22	942.38	-	
유로화	1649.24	1661.68	1648.46	1660.82	-	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	-1.1	-5.54	-11.81
결제환율(수입)		-0.86	-4.63	-9.97	-18.97
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 확인

금일 전망

양적긴축 종료 시사에...1,420원대 중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2.1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431.00) 대비 2.25원 하락한 1,426.6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파월 연준 의장의 양적긴축 종료 시사에 따른 달러 약세에 제한적 하락 전망이다. 간밤 파월 의장은 최근 미 노동시장의 냉각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,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이유는 주로 관세 영향 때문이라고 평가했다. 이어 고용과 물가 목표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며 데이터에 따라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몇 달 안에 양적 긴축을 종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. 이러한 완화적 발언에 강달러 부담이 약화되었으며, 국내에서도 고점 인식 속 수출업체 매도 물량 유입 가능성이 더해지며 환율 하락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. 한편, 미국 섯다운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백악관은 공무원 추가 감축 계획을 발표한 점 또한 달러 약세를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.

다만, 미 무역대표부가 14일부터 중국 기업이 운영 또는 보유한 선박의 입항 수수료 부과 정책을 발표한 데 대응하여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중국 개인 및 기업과의 거래나 협력활동을 금지하는 제재를 단행하며 자극한 위험회피심리는 환율 하단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423.00 ~ 1432.33 원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+5581.1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.25원 ↓
	■ 美 다우지수 : 46270.46, +202.88p(+0.44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18.3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10941 억원

※ 존 디포드는 인적주요정보제공사가 최후기연습으로부터 획득한 사료를 인종인 것으로 검토사료노면 할당하시기 마입니다.